총예협선거 투표자 오차율 논란

선거인단 명부 미확보등 선거관리체계 허술 지적

수원캠퍼스 제3대 총예비예협의회 선거에서는 선거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개표결과에 따르면 처음 1차개표시 총투표자수로 제시된 1천2백96표는 투표함의 실제 유효득표수인 1천2백19표와 77표의 오차가 생겨 '시행세칙에 명시된 투표자수와 투표용지의 차이는 ±5%이내로 오차를 인정한다'는 조항에 의해 오차율이 5.8%가 나와 중선관위는 투표자수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시 재개표를 실시했다.

재개표 결과 선거인단 명부에 정확히 중선관위원과 참관인, 투표인의 날인이 인정된 투표자수 1천2백86표가 다른 투표함에 있었던 실수표 7표를 합한 투표함의 실제 유효득표수인 1천2백26표와 60표의 표차로 오차율 4.8%가 나와 중선관위는 당선을 확정했으나 이의 제기가 들어와 일단 당선발표를 유보한 상태이다.

이의제기를 하온 현 총예협장인 신상호(서반아·3)군은 선고공고일로부터 5일이내 선거인단 명부가 확보돼야 함에도 선거실시 이틀째인 11일 오전까지 명부없이 선거가 실시되자 이번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했다. 또한, 병역면저자는 투표권이 없음에도 공대의 경우 선거권이 주어졌던 점, 편파대의 경우 선거첫날 예비역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투표용지가 배부됐던 것은 중선관위 선거관리체계가 허술해진 것과 오차도 시행세칙에 명기된 투표자수와 투표용지의 ±5% 오차율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더욱이 개표전 후보자와 선거인단, 참관인등이 참가한 가운데 공정선거원칙을 합의했으나 1차 개표시, 오차율이 5%를 넘기자 다시 정밀개표를 했다는 것은 여타 선거와 형평성에 어긋남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는 예비군 분부의 자체 일정과 예비군 훈련 등으로 선거인단 명부 전달이 늦었기 때문이며 투표시 주민등록증의 병역필 표시와 고 조교나 학과장의 예비역 확인도장을 받은 자에 한해 투표권을 주어 무리가 없었음을 밝혔다. 또한 중선관위는 관계상 총학이나 총여학생회 선거의 경우 오차율이 0.4%에도 못미쳐 총투표자수를 배부된 투표용지로 정했으나 이번 총예협 선거는 많은 오차율을 보여 공정성을 위해 선거인단 명부에 투표자수 확관, 중선관위원의 날인이 확인된 1천2백86명을 총투표자로 정한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3대 총예협 선거본부장 김형달(토목·3)군은 "선거는 시행세칙에 준함이 하며 보자라는 체과대와 외과의 69표는 투표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선관위에 앞으로 이와같은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비책을 세우길 촉구했다.

지난 13일 위의 논의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서로의 입장고수로 현재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일단 논의의 진전을 위해 중선관위는 이의제기된 문제에 명확한 입장표명과 그에 따른 일정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출장소승격 일반은행업무 수행

즉시 통장정리 가능

수원캠퍼스 외환은행(학생회관내 소재)이 지난20일부로 출납소에서 출장소로 승격이 되어 기존 입·지급만 다뤘던 단순업무에서 전반적인 일반 은행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통장정리기와 단말기 설치됨, 전산 System을 온라 인지점을 거치지 않고 즉시 통장정리가 가능해져 입·출금이 자유로와졌다.

또한, 온라인기능의 전기료등의 국고수납기능도 담당해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토요일에도 업무를 한다.

한편 현재의 제한적인 외환업무는 점진적으로 보완되어짐 예정이며 복학생에 한해 비자카드도 발행할 계획이라 한다.

한의대 '한사연' 사진전시회

인물·풍경등 20여점 전시

서울캠퍼스 한의과대학 사진연구회(한사연)는 제7회 정기 전시회를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한의과대학 4층 경혈학 실습실에서 갖는다.

체과대 제9회 사맥제 개최

감사패 증정 및 장기자랑 펼쳐

체육과학대학 학생회는 오는19일 오후4시 금대 시청각실에서 '제9회 사맥제'를 개최한다.

모두 3부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1부순서에서 김상국(체과대 체육과)학장의 격려사와 박상철(체육·4)학생회장의 인사말을 비롯 각 운동부 주장들에게 감사패 증정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2부에는 그룹사운드 '고릴롤세'의 축하공연과 운동부의 장기자랑등이 펼쳐진다.

마지막 3부행사는 참가자 보두가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순서가 마련되며 이후 뒷풀이가 있을 예정이다.

천문학회 초청강연회

아마추어 천문학회는 창립 1주년 기념행사로 조경철(자연대 우주과)교수 초청강연회를 오는 19일 오후5시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갖는다.

미교과 전국대학 미전 참가

각 부문 우수한 성적 거둬

중앙대학교 주최로 지난 8일부터 7일간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3회 전국대학미전에서 본교 미교과 학생 3명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윤태석(미교·3)군은 조소분야에서 작품명 '환두-92'로 금상을, 김채웅(미교·4)군은 서양화 '주의'로 은상을, 이은욱(미교·4)양은 동양화 '향수'로 동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한편 여성민(미교·83)군은 지난 6월 열린 미술세계대상전의 회화부문 대상을 차지한 바 있다.

교무과 기말고사기간 발표

수강 및 복수전공 신청 접수도

교무과는 수강신청 및 복수전공 희망신청 접수기간을 발표했다.

서울캠퍼스는 오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를 기말고사기간으로 정하고 복수전공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과사무실에서 접수한다.

한편, 수원캠퍼스는 오는 12월 3일부터 11일까지가 기말고사기간이며 OMR카드를 작성하여 교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복수전공 희망자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과사무실로 제출한다.

날개돋친 취업정보

◇…개표장 뒷청소는 누구꺼?

선거 개표하던 날 서관골 개표장이 온통 휴물렬이었다는데.

개표가 끝난후 웨형들 떠난 자리에 당선 축하용 종이 꽃가루와 깔개용 신문지가 한데 어우러져 빛어낸 색색 쓰레기 물결이었다고.

개표환관웨형들! 개표에의 열의가 그렇게 높으신데 끝난뒤 청소의 열의는 그와같지 않으시더이까?

◇…거울걱정 덜어주

요사이 서관골에는 한바람 직장하는 웨형이 하나둘이 아니라는데.

국선관 10층 와공실 목배져라 기대리던 웨형들, 목전에 유공건물 놓고 계속 늦어지는 내장재 설치미비로 겨울이 아속하기만 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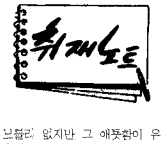
더불은 기숙사를 마련해 주려는 뜻은 고맙지만 기간내 완공·입주였다면 기쁘기 한량 없었소.

◇…환송회와 유흥업소와의 관계는?

대학가 유흥업소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웨형들의 졸업환송회를 나이트클럽이나 라카페에서 앞다투어 치르려 하니 수요 공급곡선의 원리를 체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테.

떠나고 보내는 마음을 노트구



보듯은 없지만 그 애틋함이 유흥업소 번창을 도와주게 되는 현실이 답답한 뿐이외다.

◇…자동을 권합니다.

외국에서 독성으로 린뿐된 것들도 일단 국내에 들어오면 무해롭게로 둔갑한다는데.

나락낟알이 수입농산물을 구석구석 살피지 않아 질병덩어리인 유해농산물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한다고.

백성들의 몸속에 해독작치가 되어 있다고 착각하시는 나랏님들!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려면 오늘부터 지동 한개씩을 돌소드셔보심이 어떠할런지.

◇…표찾아 삼만리

서관골 종학선거 개표시 표찾아 삼만리 소동이 벌어졌다는데.

발부된 투표용지와 개표된 용지수의 차이가 오차범위를 넘어섬에따라 뒤늦게야 중선관위는 증발된 표찾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민주주의의 꽃인 외공에 약하니 그 방패막이가 되어야할 중선관위의 처일은 막중함 터. 두실한 선거관리가 초래한 잡음들을 어떻게 처리할런지 그 무책임성이 답답하기만 하는구려.

◇…날개달린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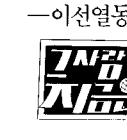
서관골 고관 웨형들 요사이 구직의 발걸음에 날개가 돋쳤다는데.

지난 방학동안 프로그램 개발등 새로운 설비를 갖춘 취업정보실이 문을 열어 구직 웨형들에게 돋친 날개가 되어 준다고.

완벽한 시설 구비의 정성과 실질적 사업으로 열심히 뛰는 모습에 취업전선을 준비하는 웨형들!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려면 웨형들 마음 든든하기만 하구료.

향토색 진한 흙냄새의 화백

—이선열동문(미교·79년졸) 을 만나



"형체의 태가 떠있는 어촌, 인적드문 깊은 산속의 실점,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윽한 정감이 있는 산과 동촌, 어촌"이라한 때 묻지 않은 한국의 풍경을 화폭지와 먹속에 담고있는 이선열 동문(미교·79졸)을 그의 개인전시회에서 만났다.

이동문의 그림속에서는 우리강산의 정취와 향토색"진한 흙냄새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그의 열정은 성장시절 뜻에 대한 열정마를 걸다. "중학교 2학년 시절 대다수가 그렇듯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부유하지 못했죠. 단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미교과에 들어갔습니다"그러나, 한동안 그것도 잠시, 한보사태는 외도(?)를 걷기도 했고, 군 제대후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그림그리기에 몰두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듬해 4학년 때 전국대학미전에서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동문이 한국화를 시작하게 된 것은 대학 3학년때부터이다. 자연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았지만 화선지와 먹이 선적에 맞고 좋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명한 궁이나 명승고적지가 아닌 알려지지 않은 자연만 화선지에 담는 이유를 이동문은 "어릴 적에 느꼈던 평화롭고 정감있는 풍경일씩 전국곳곳을 여행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본교 도예과와 수원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방학때 많은 여행을 하게된다고 한다.

이번 전시회가 개인전시회로는 1번째인 이동문은 "학생에게 시험이 그동안 공부한 것의 평가가 되고 그것때문에 무준히 공부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가에게는 전시회가 자기 체적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전시회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특히, 1996년 수원축성 2백주년 기념을 맞이서 수원성만을 소재로 한 개인전을 구상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힌다. 앞으로도 '자연'을 주제로 하는 그림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것이라며 통일후에 북한의 산수를 화폭에 담는 것과 여건이 조성된다면 잠기간 중국을 여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희망이라고 한다.

자기일과 공부에 충실하길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대학시절 자기의 맡은 일과 공부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살아있는 자연을 그리기위해 고심하는 이동문의 붓끝은 여전히 산골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

〈송보영 記者〉

朔風

탈냉전이 만든 민족분규

냉전종식이후 세계는 사회주의진영과 자본주의 진영간의 이념대결에서 벗어났다. 1989년 민주화개혁물결이 동유럽을 휩쓸때만해도 드디어 한전쟁발발 위협에서 벗어나 모두 평화롭게 산 수 있는 새시대가 개막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념이 사라지자 그 공백을 민족갈등이 채우기 시작했다. 구 소련과 동구지역 곳곳에서는 민족분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기존 국제질서붕괴과정에서 핵무기 안전관리체제가 위협받게 됐다. 어쩌면 냉전시대 보다 더 위험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민족이나 국가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근대초기 사상가들이 개인이익이야말로 한 사회를 움직여나가는 동인(動因)이라고 본 것처럼 세계를 움직여나가는 근본요소는 민족·국가이익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념이라는 미명하에 민족·국가의 이익이 억눌려졌던 냉전시대는 인류역사를 기준으로 볼때 극히 비정상적인 시대였을 수도 있다.

탈냉전의 신화는 사라져가고 있다. 탈냉전의 주역인 힘부터 흔 독일측리와 프랑수와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냉전종식의 최고수훈자로 꼽힐 만한 소지 무시 미국대통령은 지난 3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특별히 내세울 업적도 없는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완패했다. 부시대통령외에도 세계주요국가지도자 대부분이 선거에서 패배해 국제정치무대에 대폭 물갈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의 인기하락은 2차대전이후 최악의 불경기때문이기도 하지만 냉전종식후 나타나기 시작한 민족분규 등 각종 정치·사회문제도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유럽정치권에서 인종주의를 앞세운 극우파의 대두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성정치인에 식상한 국민들은 이제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극단주의적 정치세력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20세기에 들어 독일, 이탈리아, 일본등에서 파시즘이 대세했었다. 당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채택했던 바이마르공화국의 독일 국민들은 자유롭게 이뤄진 선거에서 나치침공을 선택했었다. 이같은 상황이 지금 다시 재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구 유고슬라비아지역에서는 세르비아인들이 타민족-타종교인을 강제 추방하는 이른바 '인종청소'를 자행하고 있다. 독일 각지에서는 극우세력이 외국인들에게 무차별 테러를 가하고 있다. 2차대전후 독일 최대 금기사항이던 신나치주의의 부상은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다.

신나치주의자들은 독일내 유태인 색출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유태인 학살자 우령비를 파괴하기도 한다.

세계사는 민족이나 국가간 이익충돌로 전개돼왔다. 이제 이념대립에서 탈피한 세계는 본모습을 되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새질서 새가치관이 확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근대이래 상당수 사회과학자들의 주장대로 인류가 진보하고 있는는 가정이 맞는 말이라면 그것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가.

〈奎〉

졸업준비금 납부안내

졸업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졸업앨범과 기념품등은 업체와의 계약시에 기준 것수를 1,400부(개)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 숫자는 제작업체에서 제작을 하는데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1,400명의 졸업생이 졸업준비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졸업준비금 납부자는 1,400명에서 230명이 모자라는 1,170명이 납부를 하였습니다. 졸업앨범이 제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준숫자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졸업준비금 납부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준숫자를 넘지 못하여 제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납부한 학우들에게 피해를 주게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을 인지하시고 졸업준비금을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졸업준비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졸업준비금 납부장소: 신학은행 퇴경동 지점
2. 졸업준비금총액: 57,000원
3. 기 간: 92년11월20일까지
4. 졸업준비금 용지가 없으신 분은 졸업준비위원회 사무실(학생회관 3층 안목위사무실)에서 용지를 드립니다.
5. 만약 기준부수(1,400)에 미달할 경우 졸업식 당일에 현장판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장판매는 절대로 앨범만 받는 것이 아니라 졸업준비금 총액인 57,000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졸업준비위원회

A.F.K.N 청취특강

오 전 반: 월-금 09:00-10:00=12월 7일 개강(현재 접수중)
오 후 반: 월-금 17:00-18:00=방학중엔 16:00-17:00
토요교급반: 토요일 09:30-12:30=현재 강의중(수시 접수)

● 강 사
강동식선생(A.F.K.N 청취강의국내 최고권위자)
현 경희대학교A.F.K.N 청취특강강사
현 World News영어청취지 청취비결 Series Columnist

● 강의내용
당일 또는 전날 A.F.K.N News
Pop Song Dictation
빈도수높은시사에문을통한영작훈련
1,2,3단계 A.F.K.N News 직청해훈련
(Blank Fill-in, Sentence Dictation, Topic별 내용Summary훈련)
20년 A.F.K.N News 청취 경험에 의한 예측 hearing 요령 지도
경정적인 발음원리 33가지 완전정리

● 수강대상자
최고급 수준의 청취, 회화, 어휘, 영작, 독해력을 원하시는분
Listening과 발음으로 고민하시는 분

● 수 강 료
오전반: 오후반: 월30,000원, 토요고급반: 월40,000원

경희대학교 시청각교육원(TEL961-0081)

재학생 주소록 변경기간 공고

92학년도 2학기 성적표 및 93학년도 등록고지서 발송을 위하여 주소록 변경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공고하니 재학생들은 동 기간내에 주소를 확인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1. 확인 및 정정기간
1992년 11월16일(월)~25(수)

2. 확인 및 정정장소
해당 대학 학과사무장(주소록 비치)

3. 확인 및 정정방법
1) 주소불변시-주소록상의 주소가 정확한가의 여부를 확인
2) 주소 변경시-기존 주소를 두줄로 삭제하고 변경주소를 기입
여백에 '붉은색 볼펜'으로 정자로 기재

수원캠퍼스교무처학적과

연암장학생 모집 요강

1. 신청자격 요건
정규 4년제 대학(학년 제학생('92.11.1 기준)으로서
가. 인문, 사회계 및 자연계 분야 전공학생(외·예체능계 제외)
나. 1학년 1학기 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80점이상인 학생
다. 보호자의 년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 납부액이 3만원 미만인 학생
라. 국비 또는 타관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아니한 학생
마. 1972.1.1 이후 출생한 학생
(단, 근로무부 바인 학생은 1969.1.1이후 출생한 학생)
바. 총학생회 추천을 받은 학생

2. 지급인원 및 지급액
가. 지급인원: 대략 50명씩 선발하여 지급
나. 시 급 액: 1년당 년간 240만원(학기당 120만원)

3. 지급기간: 일정성적 유지시 3년간 계속 지급도 원칙으로 함

4. 선발방법

구분	선발방법	비 고
1 차	서류심사	경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차	면 접	1차 합격된 학생에 한하여 개별통지

5. 제출서류
가. 장학생 지원 신청서(붙여진 소정양식) 2통
나. 추천서(당해년 소정양식) 1통
다. 학적증명서 1통
라. 보호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비과세증명서 (병원보호대상자증명서, 의료무료대상자증명서-해당되는 경우) 1통
마. 주민등록등본 1통
바. 주민등록사본(근로부를 마친 학생만 해당) 1통

6. 지원서 교부·접수
가. 기간: '92.11.9(월)~'92.11.23(월), 토·일요일는 제외
(추천일수는 마감일 5주전 경에 한함)
나. 교부처: 당해년 사동부 및 각 대학 장학담당 부서(학생회)
다. 교부처: 당해년 사무국
(학생회에서 접수하신 분은 11월30까지 제출하여야 함)
(150-7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20 라키리심지빌딩 동관25층)

7. 기타
가. 본 장학금은 수혜에 따른 의무사항을 없음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해년 사무국(TEL. 787 2273~4)으로 문의 바람

재단법인 연암문화재단

기독교수 성경공부 안내

(수원캠퍼스)

• 장 소: 1호관(공과대학) 세미나실(213호실)
• 일 시: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 (오후12:20~오후13:20)
• 교 재: 마가복음
• 문의처: 수원캠퍼스 구내전화 2323 (0331) 280-2323

교 회 안 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늘 같이 하시기를기원합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못하시는 분이나 지방에 교회를 둔 분들은 본교회에 오셔서 구원받으시고 교회봉사(성가대·교회학교사)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위치
경희의료원 6층 본관과 별관사이

◆ 예배시간
주일아침: 1부 9시, 2부 11시
주일저녁: 매주 일 오후7시
삼일저녁: 수요일 7시
대학 청년부: 매 토요일 오후5시

성지에서 온 교회